

“국가대표 AI 기업 사명감으로 최고 수준 모델 개발하겠다”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

“SOTA급 AI 모델 달성은
기술자립 위해 반드시 필요
올해 내 구현하는 것이 목표”

SK텔레콤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영상 CEO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르메르디앙서울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AI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겠다”고 말했다며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 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상 CEO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최고 수준의 AI를 만드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SOTA(해당 분야에서 현재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수준)급 AI 모델 달성은 기술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표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1차 단계 평가부터 오픈소스 SOTA급에 근접한 모델을 올해 안에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 말로 잠정 예정된 1차 단계 평가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 평가가 이뤄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에서 유영상 SK텔레콤 CEO에게 ‘K-AI’ 엠블럼이 새겨진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SKT

SK텔레콤 팀은 단계 평가가 계속될 수록 단순 벤치마크 성능뿐만 아니라 실 사용자 관점의 체감 성능이 중요해진다며 AI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접근성 향상, 실질적 활용성이 주요해될 것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부터 한국형 AI 모델을 자체 개발한 경험과 1000만 고객이 활용하는 AI 에이전트 ‘에이닷’을 상용화하며 수많은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성이 뛰어난 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를 전했다.

SK텔레콤은 AI 컨소시엄에 참여한 크래프톤·포티투닷(42dot)·리벨리온·라이너·셀렉트스타와 함께 AI 모델 설계부터 반도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 멀티모달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풀스택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할 계획이다.

서울대 연구실(김건희 교수, 윤성로 교수, 황승원 교수, 도재영 교수)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연구진(이기민 교수), 미 위스콘신 메디슨대 연구진(이강욱 교수, 디미트리스 파파일리오폴로스 교수) 등 국내외 석학이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핵심 목표는 한국어 처리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면서도 다국어 지원과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차세대 AI 모델 개발이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 구현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유영상 CE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모델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AI 생태계 전체의 혁신적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픈AI “韓, AI 혁신 최적지”

오픈AI코리아 출범 기자간담회
산·학·관 협력으로 AI 전환 혁신



오픈AI는 이달 11일 서울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픈AI포컨트리즈’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픈AI가 10일 한국지사인 오픈AI코리안을 공식 출범했다. 전 세계 12번째 지사이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번째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사진)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파인팩토리에서 열린 오픈AI코리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혁신적인 기업, 빠른 디지털 도입 속도를 갖춘 AI 혁신의 최적지”라며 “산업, 학계, 정부와 함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지난 2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이후 챗GPT와 카카오 생태계와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 전자, 통신, 금융, 여행, 게임,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오픈AI ‘GPT-5’ 등 최첨단 AI 기술을 도입했다.

오픈AI는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 오는 12일 ‘파운더스 데이’를 열어 스타트업, 개발자, 벤처캐피탈 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올 11월에는 개발자와 스타트업, AI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데브데이 익스체인지’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오픈AI가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챗GPT’는 최근 주간 활성 사용자 수 7억명을 돌파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챗GPT 주간 사용자가 1년 전보다 약 4배 급증했고, 유료 구독자 규모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다. /김현정 기자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포
스트타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CJ PAY 우리통장’ 개설하고 티빙 이용권·포인트 받으세요”

내달 31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CJ ONE과 우리은행은 ‘CJ PAY’ 통장 신규 가입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CJ PAY 우리통장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 혜택과 포인트 적립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선불충전금 200만원까지 최대 3% 이자 지급(기본금리 0.1%, 우대금리 최고 2.9%포인트) ▲CJ PAY 충전금으로 결제 시 최대 적립 2% ▲이체 및 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양사는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CJ PAY 우리통장을 개설하는 고객 모두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이용권과 CJ ONE 2000포인트를 지급한다. 단, 티빙 3개월 무료 이용권은 선착순 1만명에게만 지급한다.

또한 고객이 CJ PAY 우리통장을 지인에게 추천을 하고 지인이 통장을 개설하면 추천한 고객에게 티빙 이용권을 증정하는 지인 추천 이벤트도 운영한다. 지인 추천은 추천 고객당 티빙 이용권 1개월씩, 최대 6개월 이용권을 받아볼 수 있

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 첫 거래 고객이라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5000원권을 모두에게 추가로 증정한다.

CJ PAY 우리통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지난 6월 정식 출시됐다. CJ ONE 앱에서만 ‘CJ PAY 우리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 시 선불충전금이 자동으로 통장에 보관되고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예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지급한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J ONE 앱 내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KT엠모바일, 아이폰 17 자급제 대상 37만원 혜택

오는 30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국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은 아이폰 17 출시를 맞아 자급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7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9월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주며, 아이폰 17 자급제 고객은 17만원의 특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이폰 17 고객 대상 혜택은 오는 18일까지 다이렉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출

시 알림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출시 알림 신청 후 30일까지 1만 5000원 이상 요금제에 신규 가입하고 10월 내 휴대폰을 등록하면, 신규 가입 혜택과 합쳐 최대 37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렉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KT SAT, 정밀농업 솔루션 개발 박차

미래농업 리딩기업 대동과 ‘맞손’

KT SAT(셋)은 미래농업 리딩 기업 대동과 위성 영상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위성 영상 데이터 활용 정밀농업 솔루션 개발 ▲솔루션 사업화·마케팅 ▲공동 신규사업 기회 발굴 등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농업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밀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밀농업은 위성·센서 등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결합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한다.

KT 셋은 멀티밴드 센서를 기반으로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적색경계 등 여러 파장대의 빛을 관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위성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식물 생육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생육 정도, 병해충 발생,



서용수 KT SAT 대표(왼쪽)와 대동 권기재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SAT

영양 상태 등을 진단하는 다양한 식생지수 산출이 가능하다.

대동은 KT 셋 위성 데이터와 기존 드론 기반 고해상도 데이터를 융합해 토양·생육 분석, 시비 처방법 산출, 관제 플랫폼 등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농기계, AI 로봇, 데이터 센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정밀농업 분야의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